

장수군, 15만 생활인구 유입 총력

6월말 기준 생활인구 10만3259명으로 기준 목표 달성… 목표 상향 유치 나서

장수군이 생활인구 유입 목표를 10만에서 15만으로 상향하고, 총력전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행안부·통계청에서 발표한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장수군의 6월 기준 생활인구는 10만3,259명으로 장수군이 당초 목표했던 10만 명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란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지를 포함해 1일 동안 머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체류 인구로 산정된다.

장수군은 생활인구 통계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전 부서 차원의 생활인

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왔으며 누리파크, 장안산 등 주요 거점 관광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내 카드 사용액의 34% 이상을 체류인구가 소비하는 만큼,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일에는 자매결연지인 오산시 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 300여 명이 장수군을 찾아 역사체육과 방화동 일대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사과 따기를 체험했다. 군은 도심 시민들에게 장수의 독특한 매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찾아오게 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위탁보육료 지원 필요성 촉구

이미옥 진안군의원, “일·가정 양립 위해 필요”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우) 이미옥 의원(사진)은 지난 7월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위탁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미옥 의원은 “2024년 2분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1명으로, 이는 향후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며 진안군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모 선정

진안군은 2025년도 환경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도비 215억원을 포함총사업비 35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주천면 대불을 포함한 11개 블록에 이르는 진안군 8개 읍·면의 상수도 정비를 목표로 노후화된 상수도관을 개선함으로써 수돗물을 높이고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2025년~2030년까지 노후 상수관 교체, 관로 개량, 유수를 제고를 위한 수질 및 누수 관리 체계 강화이다.

진안군은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상수도 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수질 개선을 통해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노후 상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 크나이프 체험캠프

진안군은 지난 7일 군 아토피·천식 안심 학교인 강승초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크나이프 체험캠프를 실시했다.

크나이프 체험캠프는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진안고원치유숲)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자연치유 요법인 크나이프 교육 및 술마시지 실습, 알레르기 질환에 도움을 주는 과일청 및 비누 만들기 체험, 환경 보건 문화 행사를 통해 환아의 아토피·천식 질환에 대한 이해도와 자가관리 역량을 높였다.

라영현 보건소장은 “아토피·천식 질환은 적절한 생활환경 조성과 꾸준한 자가 관리가 중요하다”며 “아토피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국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무주 가을 하늘 수놓아

전북특별자치도배 전국대회 무주서 열려… 350여명 참가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가 9일과 10일 양일간 무주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무주군체육회(회장 송재호), 전민일보사(시장 문봉호), 전북 특별자치도 패러글라이딩협회(회장 양병국)가 주최하고 무주군패러글라이딩협회(회장 임형준)가 주관한 것으로, 전국에서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350여 명이 참가해 무주의 하늘을 수놓았다.

첫날에는 심판과 선수, 진행요원 대상 안전교육을 비롯해 지형 숙지 비행과 비행 결과 토의의 시간 등이 마련됐으며 이튿날인 10일에는 개회식과 단체전·조종사·연습조종사 부문 경기가 펼쳐졌다.

이날 선수와 내빈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읍 내도리 반딧불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가 9일과 10일 양일간 무주군에서 개최됐다.

공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황인홍 군수는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가 무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리며 “다양한 스포츠와 관광이 일품인 무주가 이번 대회를 통해 패러글라이딩 명소로 이름을 알리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설천면 이산에서 발견됐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 나무가 지난 10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힘에 따라 산림청 등 24개 관계기관이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조사에 나서는 등 방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확산 방지 주력

무주군은 설천면 야산에서 발견됐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 나무가 지난 10월 31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힘에 따라 산림청 등 24개 관계기관이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조사에 나서는 등 방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곳은 설천면 소천리 일대로 충북 영동군과 인접하고 반경 5km 이내에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덕유산국립공원 등 관광지가 위치해 관계기관 간 협업 방제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모두배기(수집·파쇄 1회)를 비롯한 나무(예방)주사(20㏊), 약제살포(지상방제 20㏊)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산림병해충예찰단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지역 주변 산림 정밀조사 등도 진행된다.

무주군청 산림녹지과 신정호 과장은 “소나무에이즈로도 알려진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확산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소나무류의 이동 제한 구역 내 소나무 이동이 제한되며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절차를 거쳐 이동해야 한다.

화목을 취급하는 농가에서도 먼저 허가받고 소나무 원목을 이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진안점, 프로모션 행사 진행

진안군은 농업인의 날(11.11.)과 진안 고원 김치보쌈축제(11.16.~17.)를 기념해 로컬푸드직매장 진안점에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첫 번째 프로모션은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 농민들이 기부한 농산물을 진안 로컬푸드 매장 구매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은품으로 지급한다. 추첨은 농업인의 날 당일 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고객, 고춧가루, 마늘 등 10여개 품목



으로 진안고원의 우수하고 맛있는 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하루 2회 진안 데자비리큐 시식코너도 운영돼 질 좋은 진안고기를 맛볼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